

## 『清交』로 보는 한국 건축문화재 조사 및 보존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Survey and the Conservation of the Korean Historic Buildings in the “Seikou” published from 1937 to 1943

김민숙\*1)

Kim, Min-Suk

(일본 와세다(早稻田)대학 이공학술원종합연구소 초빙연구원)

## Abstract

The magazine (Bulletin) of “Seikou” was made by conservation engineers to exchange information about the survey and repair work of historic buildings in Japan before World War II. This magazine has 26 volumes in total, and was published periodically four times a year from April 1937 to December 1943. Publisher is Nindokai that is supposed to the forerunner of Bunkenkyo (the Japanese Association for Conservation of Architectural Monuments). Only 3 or 4 organizations except personal possession have it now. And it has a limit to use the contents of the article as a general historical material. So, it was rare that experts and researcher used to the “Seikou”. However, this study focuses on the articles of the Korean historic building, which is sometimes appeared in it, although there are few.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larify the fact-finding of the conservation for the Korean historic building in Japanese colonial period by analyzing the articles in historical records of “Seikou”.

주제어 : 清交, 忍冬會, 건축 문화재, 수리기술자, 수리공사

Keywords: Seikou, Nindokai, Historic building, Conservation engineer, Construction and repair

##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현행 건축문화재 조사 및 보존수리공사의 시작은 일제강점기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며 선행연구를 통해 이미 기초적인 연구사는 정리된 바 있다.<sup>1)</sup> 또한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문화재 보존에 관한 연구 논문수의 증가와 새로운 자료의 발굴에 따른 연구 성과가 꾸준히 뒤를 잇고 있어 일제강점기 한국의 건축문화재 수리기술자와 수리공사내용에 대해서도 조금씩 명확해지고 있다.<sup>2)</sup> 그

\* Corresponding Author : baramsook@gmail.com

This study was supported by the Grant-in-Aid for Young Scientists B (No.22760493) of the Japan Society for the Promotion of Science.

1) 대표적인 선행연구로 한재수의 『韓國建築史學의 變遷過程에 關한 研究』(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7)과 김동욱의 「20세기 건축사학의 전개」(『한국건축사연구 1 분야와 시대』, 발언, 2003, pp. 25-58)를 들 수 있다.

러나 당시의 일본인 수리기술자들을 중심으로 한 문화재 보존 현장에서의 지식 및 정보 교환 환경에 대해서는 아직 공백으로 남아있는 부분이 많고, 당시 활동했던 인물 중 杉山信三의 회고록<sup>3)</sup>과 같은 자료들을 단서로 수리기술자들의 담당현장과 인적 네트워크에 대해 일부 추측이 가능할 뿐이다.

오늘날에는 건축문화재 수리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모

2) 최근의 논문으로는 조현정의 『한국 건조물 문화재 보존사에 관한 연구 - 1910년 이후 수리된 목조건조물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4), 강현의 『일제강점기 문화재 보존 연구』(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김재국의 『일제강점기 고려시대 건축물 보존 연구』(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김민숙의 『植民地朝鮮に歴史的建造物の保存と修理工事に關する研究-修德寺大雄殿修理工事を中心として-』(早稻田大學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私家版, 2008. 3.), 김관기의 「일제하 근대적 건축수리와 보존제도의 성격 연구」(한국건축역사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1. 11), 田中禎彦의 『日本植民地における歴史的建造物の調査保存事業 - 中國東北部(滿州國), 朝鮮を中心として -』(京都大學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私家版, 2009.12.) 등이 있다.

3) 杉山信三, 「附記・別記・附録」, 『韓國の中世建築』, 相模書房, 1984.

임으로 (사)한국문화재수리기술자협회<sup>4)</sup>와 (사)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sup>5)</sup>가 존재하지만, 이들 모두 1980년대 후반에 서야 조직된 것이다. 본 연구는 근대적 문화재 보존수리공사가 시작된 일제강점기에도 오늘날과 같은 조직이나 활동이 있었는지, 아니면 문화재보존과 관련된 모든 활동이 조선총독부를 주축으로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문에서 착안한 것이다.

동시기의 일본의 상황을 살펴보면, 1930년대 후반이 되면 일본 전국에 산재하는 문화재 수리현장을 총괄하는 단체가 없어 기술자 상호간의 연락, 정보 교환 등이 어려운 점을 들어 수리기술자들이 주축이 되어 친목 도모와 연락망 구성을 위해 忍冬會라는 동호회를 조직하고 『清交』라는 會誌를 발행한 것을 알 수 있다. 당시 한국에서 활동했던 일본인 수리기술자들의 공식적인 모임은 아직까지 보고된 바 없으나 그들은 한국으로 건너오기 전에 일본에서 문화재 관련 일에 종사했던 경력을 가지고 있거나 한일 양국에서 활동을 하기도 했다.

鈴木嘉吉는 일본의 건축문화재 수리와 관련된 움직임으로서 忍冬會의 결성과 그 기관지인 『清交』의 발행을 특기할 만한 것으로 꼽고 있다. 忍冬會는 수리공사 관계자들 간의 친목 도모와 연락을 위한 조직으로 처음에는 法隆寺 수리현장에 본부를 두어 발족하고 季刊誌인 『清交』를 발행했다. 鈴木는 이 책자에 대해 ‘고건축의 보존에 관한 의견, 기법에 관한 연구, 수리시의 발견에 대한 자료 보고, 현장 통신 등이 게재되어 있어 수리관계자 상호 간의 계발·능력 신장에 큰 역할을 함과 더불어 보다 나은 수리를 충실히 행하기 위한 연대의식을 높였다.’<sup>6)</sup>라고 평가하고 있다.

『清交』라는 자료의 존재에 대해서는 이미 몇몇 연

4) 한국문화재수리기술자협회는 한국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에 이바지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들의 결속과 문화재의 원형보존·문화재수리 또는 학술, 기술, 전문적인 연구에 종사하는 자들의 연계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1988년 9월21일에 한국문화재보존기술진흥회로 출발하였고 1998년 3월에 현재와 같은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주요 활동으로는 문화재에 관한 교육강좌 개설 및 학술 세미나 및 좌담회 개최, 국내외 건축문화 조사 및 답사, 『한국 문화재보존고』와 『문화재 인명록』 등의 간행, 문화유적지 환경정화 운동 등을 들 수 있다. (<http://www.mungi.co.kr/>, 참조일: 2014년 2월 13일)

5) 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는 1988년 8월 18일에 설립되었으며, 문화재 보존수리기능의 전승개발, 문화재 애호사상 양양, 회원자질 향상과 상호간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 단체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학술교양지 문화재기능의 맥 발간, 국내외 문화재 탐방, 한국문화재기능인 작품전, 문화재 보존수리와 관련한 법적 제도적 정책 건의 등이 있다. (<http://kcca88.or.kr/>, 참조일: 2014년 2월 13일)

6) 鈴木嘉吉, 「10編 9章 法隆寺修理」, 『近代日本建築學發達史』 下卷, 日本建築學會 編, 文生書院, 2001, p.1771.

구자들의 논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sup>7)</sup> 최근에는 일본의 文化財建造物保存技術協會의 機關誌인 『文建協通信』에서 특집<sup>8)</sup>으로 다룬 바 있다. 국내에서는 『清交』가 1차 사료로서 주목받은 적은 없었으나 『韓國文化財保存 日政期資料集成 1』<sup>9)</sup>의 「1-2 한국건축보존공사회고」에서 간접적으로 언급된 바 있다.<sup>10)</sup> 靑柳憲昌는 『清交』에 실린 일본의 고건축 보존에 관한 의견들을 취합하여 1935년대의 문화재 수리기술자들의 보존관에 대해 고찰한 바 있다.<sup>11)</sup> 이것은 『清交』를 1차 사료로서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한 선례이다.

그러나 『清交』는 그 사료적 가치는 학계나 문화재계에서 인정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희소한 귀중본<sup>12)</sup>이기에 문화재 보존에 관한 기존 연구에서는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清交』가 국내에 그다지 알려져 있지 않은 자료라는 점에서 『清交』에 대해 간략한 개요를 소개한 후에 『清交』에 게재된 한국 관련 기사들을 살펴봄으로써 1930~40년대의 건축문화재 조사에 대해 알아보고, 수리공사와 관련된 기사를 통합 분석함으로써 일제강점기 문화재 수리공사 현황에 대해 가시적으로 복원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또한, 한국 건축문화재보존사에 있어서의 『清交』의 사료적 가치에 대해 고찰하고

7) 岡田英男의 「第4章 修理の技法」(『新建築學大系 50 歴史的建造物の保存』, 章國寺, 1999, p.171), 鈴木嘉吉의 「10編 9章 法隆寺修理」(日本建築學會編, 『近代日本建築學發達史』 下卷, 文生書院, 2001, p.1771), 大田博太郎·鈴木嘉吉·龜井伸雄의 「卷頭鼎談 文化財における修理の考え方と技術」(『建築雜誌』 116(1471), 日本建築學會, 2001. 5, p.27) 등에서 언급하고 있다.

8) 『文建協通信』 제 100호(文化財建造物保存技術協會, 2010. 4)의 기념특집으로 『文建協通信』 이전에 간행되었던 세 機關誌를 회고하는 기획(「『清交』 『古建築』 『ふんぎ』をふりかえる」)이며, 세 機關誌의 목차도 실려 있다.

9) 이 책은 일제강점기의 문화재 조사 보존 사업과 관련된 주요 자료들의 국문 번역 자료집으로 간행되었다.

10) 『清交』와 관련된 부분은 <성불사 응진전>과 <수덕사 대웅전 등에 보이는 일형식에 대하여>이다. 전자는 『清交』 제 16호(1941.12.)에 실렸던 小川敬吉의 「圖版解説 寶物成佛寺應心殿」을 옮겨 번역한 것으로 원고 말미에 小川가 「朝鮮と建築」에 발표한 「成佛寺應心殿と其墨書」의 내용을 덧붙여 소개한 것이다. 후자는 杉山信三가 『清交』 제 23호(1943. 2.)에 기고한 「修德寺大雄殿等に見る一形式に就いて」와 제목은 같으나 杉山の 『韓國の中世建築』에 실렸던 부분을 옮긴 것으로 『清交』에서는 수덕사 대웅전의 사진은 발견할 수 없었다.

11) 靑柳憲昌·藤岡洋保, 「『清交』に見る昭和10年代の文化財修理技術者たちの保存観」, 『學術講演梗概集』 F-2, 日本建築學會, 2003. 7. pp.713-714.

12) 개인소장자가 있을지도 모르나 현시점에서는 東京대학 대학원 법학정치학연구과 부속 근대일본법정사료센터(明治新聞雜誌文庫), 京都대학 건축계도시설, 奈良文化財研究所, 文化財建造物保存技術協會의 소장본만 알려져 있다.

자 한다.

1-2. 연구방법

일제강점기의 건축문화재 보존의 실태를 보다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단편적이거나 당시의 문헌자료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취합하여 정보간의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연구자료는 『清交』 창간호(1937년 4월)부터 최종호인 제 26호(1943년 12월)까지 모두 활용하였다. 이들 자료 중에 한국 관련 기사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였고 短信과 같은 소식란 등도 적극적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부수적으로 관련 참고문헌 등도 함께 살폈다.

2. 『清交』와 한국 관련 기사

2-1. 『清交』의 창간 배경과 ‘清交’의 의미

『清交』(제 1호(1937년 4월)~제 26호(1943년 12월), Fig.1)는 忍冬會의 동인지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간행된 잡지로 불과 7년 동안만 존속했지만, 季刊誌로 총 26호까지는 꾸준히 발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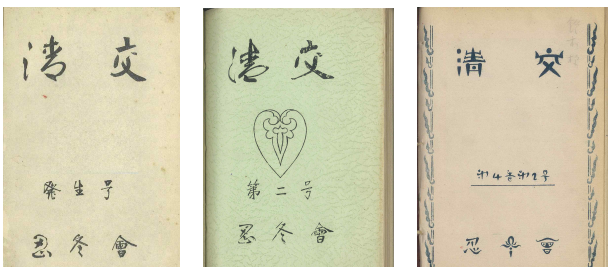


Fig.1 The first issue (left), the second issue (center), the 13th issue (right) of the “Seikou”

건축사가 太田博太郎는 忍冬會의 출발과 『清交』의 창간목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13)

고건축의 수리현장은 전국에 널려 있다. 예전에는 현장 기술자 사이의 상호연락이 없어 이름은 알고 있어도 만난 적은 없어 지식 교환 등은 거의 없었다. 竹原吉助씨는 이것을 우려하여 忍冬會를 만들고 『清交』라는 잡지를 발간했다. 昭和 12년의 일이다. 물론 등사판이었다. 『清交』는 昭和 19년<sup>14)</sup>에 26호까지 발간되고 전쟁 때문에 휴간하지 않을 수 없었으나, 昭和 27년에 『고

건축』으로 개명하여 부활했다. 그러나 이 잡지도 편집 담당자의 부담이 커 昭和 53년에 35호를 마지막으로 휴간하게 되었다.

여기서 昭和 12년은 1937년으로 발간인 竹原吉助는 大阪의 富田林에 있는 錦織神社의 수리에 참여하기 시작한 때이고,<sup>15)</sup> 일본의 문화재보존사에서는 法隆寺의 昭和 대수리(1934년~1985년)가 시작되면서 淺野清를 비롯한 수리기술자들의 본격적인 수리에 대한 철학이 엿보이기 시작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창간호는 1937년 4월에 발행되었고, 마지막 26호(1943년 12월)까지 편집담당은 竹原로부터 日名子元雄, 古西武彦의 순으로 바뀌었다.

‘清交’의 의미에 대해 『清交』 창간호에서 阪谷精軒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sup>16)</sup>

어려운 동양의 고전에서 따온 것이 아니라 위인의 금언에도 없을 것 같다. 단지 앞에서도 서술한 바와 같이 이 잡지는 청아한 이야기(清談)를 나누고 지식을 교환할 목적으로 만든 것이기에 ‘청(淸)’과 ‘교(交)’의 문자를 각각 따서 이렇게 명명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2-2. 『清交』로 보는 한국 관련 기사

『清交』 총 26권 중 12권(46.2%)에 한국 관련 기사(제 3호, 제 4호, 제 7호, 제 8호, 제 9호, 제 11호, 제 13호, 제 14호, 제 15호, 제 16호, 제 20호, 제 23호)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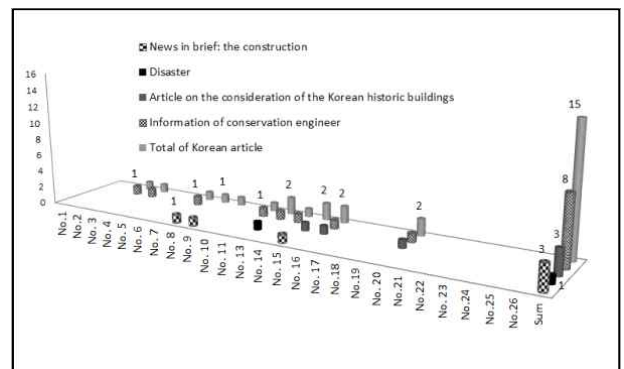


Fig.2 The Korean-related articles on the “Seikou”

또한 기사의 내역별로 보면, <Fig.2>과 같이 한국의 건축문화재 수리공사에 대한 간략한 보고가 3건(제 8호, 제 9호, 제 15호), 재해와 관련된 기사가 1건(제 13호), 한국건축에 대한 논고가 4건(제 15호, 제 16호, 제 20호,


13) 太田博太郎, 「『協會通信』から『文建協通信』へ(『文建協通信』第1号巻頭挨拶再録)」, 『文建協通信』100号, 文化財建造物保存技術協會, 2010. 4.

14) 太田는 昭和 19년(1944)이라고 썼으나, 26호가 발행된 것은 정확히는 昭和 18년(1943) 12월이다.

15) 각주 13)의 전게서, p. 2.

16) 古西武彦, 「清交の創刊に際して」, 『清交』發生号, 忍冬會, 1937. 4, p.3.

Tab.1 Construction report for the Korean historic buildings on the “Seikou”

Serial No.	Article	Object of Report	Figures	Reporter	Pages	Month/Year of Publication
No.8	國寶建造物修理工事短信	修德寺 大雄殿	 No caption	-	pp.29-30	1939. 12.
No.9	國寶建造物修理工事短信	華嚴寺 覺皇殿	-	上久保 生	p.19	1939. 4.
No.15	現場通信 朝鮮古建築修理の現況	成川東明館, 水原 蒼龍門, 華嚴寺 覺皇殿, 修德寺 大雄殿	-	杉山信三	pp.48-49	1940. 10.

제 23호)이 게재되어 있다. 그 외에 수리현장과 담당자 등에 관한 정보(제 3호, 제 4호, 제 7호, 제 11호, 제 13호, 제 14호, 제 16호, 제 20호)가 꾸준히 실려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수리관련 기사를 보면<Tab.1>, 제 8호와 제 9호에는 건물의 소재지, 건물의 규모와 형식, 구조 등에 관해 간략히 보고하고 있는 것에 반해, 제 15호에서는 수리공사 4건(成川 東明館, 水原 蒼龍門, 華嚴寺 覺皇殿, 修德寺 大雄殿)에 대해 각 건물의 기본정보는 생략하고 예산, 현장 담당자, 수리의 진척상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하고 있다. 또한 제 8호의 기사에는 언급된 수덕사 대웅전의 내부사진이 게재되어 있으나 저자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제 9호와 제 15호의 기사에는 도판은 없으나 각각 보고자가 명시되어 있었다.

다음으로 『清交』에는 재해로 인한 일본의 건조물 문화재의 피해상황에 대한 보고나 방재와 관련된 기사들이 다수 있지만, 한국의 건조물 문화재와 관련해서는 『清交』 제 13호에 실린 「낙뢰가 한 일(かみなりのしわざ)」<sup>17)</sup>이라는 기사가 유일하다.

杉山信三은 이 글을 쓴 계기에 대해, 『清交』 제11호에 실린 「斑鳩日記」에서 法隆寺 東院 남문의 서까래가 검게 탄 것으로 보이는 것은 낙뢰로 인한 피해라 고한 것을 보고 자신이 조선에서 경험했던 낙뢰의 흔적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다.

杉山는 이 글에서 낙뢰의 흔적을 水原 八達門과 成川 東明館에서 보았다고 하고 있으며 그 피해상황에 대한 조사내용을 사진게재와 함께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 기사에 의하면, 水原 八達門은 1938년 8월 중순에 낙뢰

피해를 입었고, 용마루의 서쪽이 피해를 입어 용마루 부분의 석회가 박리되었으며 상층 내부에서는 <Fig.3>의 왼쪽 끝에 있는 기둥 상부에서 그 흔적을 발견했으나 그 기둥을 타고 이동하지 않고 <Fig.3>의 중앙에 있는 기둥에서 번개가 지나간 흔적을 발견했다고 하고 있다.

成川 東明館은 상층과 하층 기둥의 목재 종류가 달라 상층은 八達門과 같은 흔적을 남기고 있었지만, 하층 기둥은 나무결이 고르지 않아 불규칙하게 갈라져 있고 기둥하부의 초석은 두 개로 나뉘어져 있었다고 전하고 있다.

일본의 건조물 문화재에 피뢰침을 설치하기 시작한 것은 明治 8년(1875)으로 尾山神社 神門에 설치한 예가 최초로 알려져 있다. 그 뒤를 이어 1891년에는 春日大社 本殿에 피뢰침이 설치되었고, 興福寺(1907년에 설치), 法隆寺 金堂·五重塔(1909년에 설치), 東大寺 金堂 등에 피뢰침이 설치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건조물 문화재 수리공사 관련 자료에서 피뢰침 설치에 대한 언급은 찾아보기 어렵고 당시 건조물 문화재의 낙뢰 피해에 대한 조사가 있었다는 것도 현재로선 杉山의 이 글이 최초가 아닐까 사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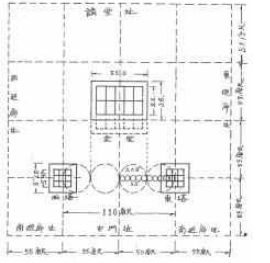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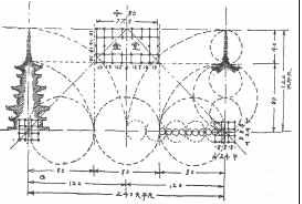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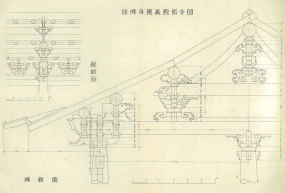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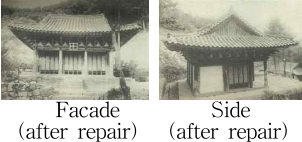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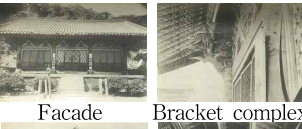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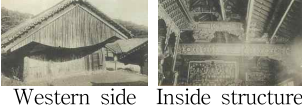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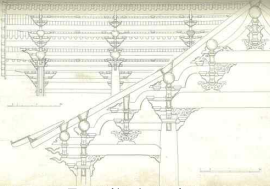
한국건축 관련 기사를 보면<Tab.2>, 米田美代治의 가람배치에 관한 고찰을 제외하면 모두 개별 건물에 대한 소개에 그치고 있다. 淸平寺 極樂殿에 대해서는 건립



Fig.3 Upper-story Inside of Paldal Gate, Suwon damaged by Thunder (“Seikou”, No.13, 1940. 4, p.30)

17) 杉山信三, 「かみなりのしわざ」, 『清交』 제 13호, 忍冬會, 1940. 4, pp.28-33.

Tab.2 Article on the consideration of the Korean historic buildings

Serial No.	Article	Objects	Figures		Author	Pages	Month/Year of Publication
			Photograph or Drawing	Location			
No.15	新羅統一初期の寺址から見た内鮮のつながり	望徳寺址 伽藍配置	 <p>Zoning and site planning of Mangdeoksa temple</p>  <p>Relation between Kondo and twin pagodas in Yakushiji temple, Fujiwara imperial site</p>	본문 중, pp.18-19	米田美代治	pp.17-19	1940. 10.
No.16	圖版解説 寶物成佛寺應心殿	成佛寺 應眞殿	 <p>Detail drawing</p>	삼화	小川敬吉	pp.26-28	1941. 12
No.20	朝鮮時代初期の建築二三について	清平寺 極樂殿 海州文廟 大成殿 貝葉寺寒山殿	 <p>Facade (after repair) Side (after repair)</p>  <p>Facade Detail</p>  <p>Facade Bracket complex</p>  <p>Western side Inside structure</p>	삼화	杉山信三	pp.45-57	1942. 3.
No.23	修徳寺大雄殿等に見る一形式に就いて	修徳寺 大雄殿	 <p>Detail drawing</p>	삼화	杉山信三	pp.9-12	1943. 12

Tab.3 Articles of conservation and repair for the Korean historic buildings in the “*seikou*”

Serial No.	Division of Cultural Properties	Address Entry (district)	The Number of the Conservation Engineers								Contents of Estimated Construction Period	Month/ Year of Publication	
			總督府內	平壤大同門	華嚴寺覺皇殿	修德寺大雄殿	義州統軍亭	成川東明館	水原蒼龍門	開心寺大雄殿			長安寺四聖殿
No.3	國有 1건, 寺有 3건		3	2	3	2							1937. 11.
No.4		有 (도 단위)	5	2	2	2							1938. 4.
No.7	古蹟 1건, 寶物 2건, 寶物未指定 1건	有 (군 단위)	9	2	4	3	1					有	1938. 11.
No.11	古蹟 1건	有 (군 단위)	4		4	3	1	3				有	1939. 11.
No.13	古蹟 1건, 寶物 2건, 寶物未指定 1건	有 (군 단위)			3	2		3	2			有	1940. 4.
No.14	古蹟 1건, 寶物 1건	有 (군 단위)			3	2		3	2			有	1940. 7.
No.16	古蹟 1건	有 (군 단위)			2			1	1	1	1	有	1941. 2.
No.20		有 (군 단위)						1		2	3	有	1942. 3.

연대에 관한 고찰을 하고 있고, 海州文廟 大成殿과 貝葉寺 寒山殿에 대해서는 보물 지정에 이르기까지의 문화재로서의 가치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그 외에 한국의 건조물 수리공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清交』 제 3호(1937. 11.), 제 4호(1938. 4.), 제 7호(1938. 11.), 제 11호(1939. 11.), 제 13호(1940. 4.), 제 14호(1940. 7.), 제 16호(1941. 2.), 제 20호(1942. 3.)로 총 8권이다. 각 권별 기재정보는 조금씩 다르지만, 당시의 문화재의 지정구분, 건조물 문화재의 소재지, 수리 대상과 수리에 참여한 담당자수, 예정공기 등을 파악할 수 있다. <Tab.3>은 각 권별 정보의 기재유무와 수리 인원수 등을 정리한 것이다. 『清交』에서 파악할 수 있는 수리 현장은 총 9개소(華嚴寺 覺皇殿, 修德寺 大雄殿, 平壤 大同門, 義州 統軍亭, 淸平寺 極樂殿, 成川 東明館, 水原 蒼龍門, 開心寺 大雄殿, 長安寺 四聖殿)로 수리기술자<sup>18)</sup>로서 가장 많은 인원이 등장하는 것은 제 7호(총 18명<sup>19)</sup>)이다. 이 중 제 7호의 吉川孝次를 제외하면 각 호에서 총독부 소속으로 표기된 인물과 현장 멤버 중에 중복된 이름은 없었다.

18) 『清交』에서는 修理技術員 또는 현장담당자로 표현하고 있다.

19) <Tab.3>에서는 총 19명이나 吉川孝次の 이름이 중복되어 있으므로 실제로는 18명이다. 게다가 여기에서는 조선총독부 학무국 내에 보물보존관계 기술원으로서 天沼俊一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어 본 논문에서 수리기술자로 포함을 시켰으나 담당현장에 대한 정보는 발견할 수가 없었다.

### 3. 『清交』로 보는 한국 건축문화재 보존수리 및 『清交』의 사료적 가치

#### 3-1. 1930-40년대의 한국 문화재 수리현장과 담당 수리기술자들 간의 상호관계

<Tab.4>는 2-2절의 한국 관련 기사 중 건조물 수리공사에 대한 정보<sup>20)</sup> 및 수리기술자들의 전공에 관한 뉴스 등을 발췌하여 표로 정리한 것이다. <sup>21)</sup> 이 표를 바탕으로 각 수리기술자의 담당 업무 및 담당 현장 등을 정리한 것이 <Tab.5>이다. 수리기술자는 총 21명, 혹은 22명으로<sup>22)</sup> 吉川孝次는 현장 3개소를 담당하고, 6명의 수리기술자(小川敬吉, 池田宗龜, 杉山民治, 岡田榮, 野村孝文, 板谷定一)가 현장 2개소를 담당했음을 알 수 있으며 현장 담당 순서도 추정하는 게 가능하다. 小川敬吉<sup>23)</sup>

20) <Tab.4>의 각 현장별 담당인원만을 발췌하여 작성한 것이 <Tab.3>이다.

21) 『清交』 제 3호에서는 李濛哲과 『清交』 제 4호의 吉川吉次는 로 각각 李漢哲과 吉川孝次와 동일한 인물로 보이며, 誤記한 것으로 사료된다.

22) <Tab.5>에서 화엄사 각황전 수리기술자로서 ‘氏名不明’으로 표기한 것은 『清交』 제 3호의 해당기사의 ‘上久保九市郎·楊澈洙·他一名’로 가장 후자에 해당한다. 이후의 각황전 수리기술자로 宮城忠一, 井戶本 治, 공사고문으로서 藤島亥治郎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고려하면 ‘氏名不明’의 1인은 이 세 사람중에 한 명일 가능성도 있으나 전혀 다른 인물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그대로 남겨 두었다.



Tab.4 Conservation engineers and repair works for the Korean historic buildings in the “seikou”

No.	出版年月	勤務先			担当者氏名	予定工期	備考		
		朝鮮總督府	指定区分	所在地 名称					
No. 3	1937年 1月		国有 建造物 寺有 建造物	總督府博物館内	吉川孝次, 上床定一, 杉山信三				
				平安南道	平壤大同門	杉山民治, 岡田栄			
				全羅南道	華嚴寺堂皇殿	上久保九市郎, 楊殿洙, 他一名			
				忠清南道	修德寺大雄殿	池田宗龜, 濵本政太郎●			
No. 4	1938年 4月	總督府		江原道	清平寺極樂殿	板谷定一, 李漢哲			
				平安南道	平壤大同門	杉山民治, 岡田栄			
				全羅南道	華嚴寺堂皇殿	上久保九市郎, 楊殿洙			
				忠清南道	修德寺大雄殿	池田宗龜, 濵本政太郎●			
No. 7	1938年 1月	總督府學務 局社會教育 課古蹟係内		天沼俊一 藤島亥次郎(東京帝國大學教授(華嚴寺堂皇殿工事顧問)) 野村孝文(京城高等工業學校教授(平壤大同門工事監督))★ 小川敬吉(修德寺大雄殿工事監督)★ 杉山信三 吉川孝次 米田美代治 李漢哲 上床定一●					
				古蹟	平安北道 義州郡	義州統軍亭	吉川孝次	自昭和13年3月 18ヶ月間	
				宝物	平安南道 平壤府	平壤大同門	杉山民治, 岡田栄●	自昭和11年10月 30ヶ月間	
				宝物	忠清南道 礼山郡	修德寺大雄殿	池田宗龜, 濵本政太郎●, 鄭恩鎮	自昭和12年2月 24ヶ月間	
				宝物	全羅南道 求礼郡	華嚴寺堂皇殿	宮城忠一★, 上久保九市郎, 井戸本治, 楊殿洙	自昭和10年6月 至昭和14年12月	
				未指定					清平寺極樂殿修理工事は去る7月末日を以て竣工。 李漢哲 江原道清平寺極樂殿修理工事は完了後、朝鮮 總督府學務局社會教育課へ勤務(「転任」欄)。 板谷定一 同上工事は完了後備省中(「転任」欄)。
No. 9	1939年 4月						朝鮮關係は前々号(第7号)に掲載したので省略。 鄭恩鎮 忠清南道修德寺修理工事は退職、全道庁土木課に転任(「消息」欄)。		
No.10	1939年 9月								
No.11	1939年 11月			古蹟	平安北道 義州郡	義州統軍亭	吉川孝次	自13. 3. 至14.10.31	
					平安南道 咸川郡	香舍東明館	杉山民治, 板谷定一, 岡田栄●	自13. 9. 1	
					忠清南道 礼山郡	修德寺大雄殿	池田宗龜, 鄭恩鎮, 濵本政太郎●	自12. 2 且下工事中	
					全羅南道 求礼郡	華嚴寺堂皇殿	宮城忠一, 上久保九市郎, 井戸本治, 楊殿洙	自10. 6 至14.12	
							小川敬吉(14. 8. 9附)		
							杉山信三, 米田美代治, 李漢哲		
No.13	1940年 4月		宝物	平安南道 咸川郡	咸川東明館	野村孝文★, 杉山民治, 岡田栄	自14. 9		
				古蹟	京畿道 水原郡	水原蒼龍門	吉川孝次, 上床定一	自14.10 至15.10	
				宝物	忠清南道 礼山郡	修德寺大雄殿	小川敬吉★, 池田宗龜	自12. 2 至15.12	
				宝物	全羅南道 求礼郡	華嚴寺堂皇殿	宮城忠一★, 上久保九市郎, 井戸本治	自10. 6 至15.12	
				未指定					
No.14	1940年 7月		宝物	平安南道 咸川郡	咸川東明館	野村孝文, 杉山民治, 岡田栄	自14. 9		
				古蹟	京畿道 水原郡	水原蒼龍門	吉川孝次, 上床定一	自14.10 至15.10	
					忠清南道 礼山郡	修德寺大雄殿	小川敬吉, 池田宗龜	自12. 2 至15.12	
					全羅南道 求礼郡	華嚴寺堂皇殿	宮城忠一, 上久保九市郎, 井戸本治	自10. 6 至15.12	
No.16	1941年 2月		宝物	平安南道 咸川郡	咸川東明館	杉山民治	自15.12.	第二期	
				古蹟	京畿道 水原郡	水原蒼龍門	吉川孝次	自15.10. 至16. 5.	
					全羅南道 求礼郡	華嚴寺堂皇殿	上久保九市郎, 井戸本治	自16. 3.	
					忠清南道 瑞山郡	開心寺大雄殿	池田宗龜	自16. 1. 至17. 8.	
					江原道 淮陽郡	長安寺四聖殿	平井茂市	自16. 1. 至17.12.	
No.20	1942年 3月		宝物	平安南道 咸川郡	咸川東明館	吉川孝次	自15.12.		
					忠清南道 瑞山郡	開心寺大雄殿	池田宗龜, 小川敬吉★	自16. 1.	
					江原道 淮陽郡	長安寺四聖殿	平井茂市, 新井瀧雄, 杉山信三★	自16. 1.	

『清交』의 기재를 다음과 같이 표기 (★監督, ●事業監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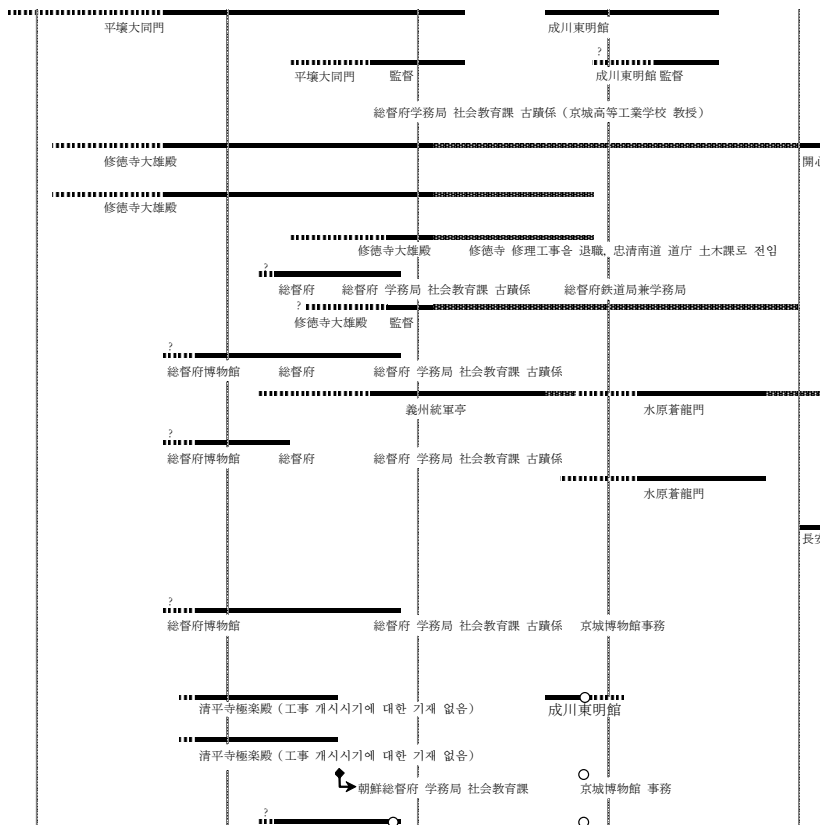
23) 小川敬吉(1882~1950)는 1916년부터 1944년까지 조선총독부 직원으로 한국의 고적조사와 문화재 수리현장에 참여했던 인물이다. 그는 일본 工手學校(지금의 工學院대학) 출신으로 스케치가 뛰어나 關野貞에 의해 발탁되어 낙랑고분 발굴조사 보조차 한국으로 건너 오게 되었다. 해방 전까지 학무국, 관방회계과, 철도국 등에서 고적 조사와 보물 보존의 행정에 관련된 일을 했으며, 1937년 이후로는 건조물 수리감독도 병행하였다. 그의 고적조사 및 건조물 수리와 관련된 자료들은 현재 교토대학 고고학연구소와 同대학 건축계도서실, 사가현립 나고야성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다. 오가와와 이력에 대한

와 池田宗龜<sup>24)</sup>가 修德寺 大雄殿 공사<sup>25)</sup>현장에서 開心

상세한 내용은 본 저자의 학위논문(『植民地朝鮮に歴史的建造物の保存と修理工事に關する研究-修德寺大雄殿修理工事を中心として-』) 제 5장을 참조.

24) 한국의 건조물 문화재 수리와 관련된 자료에서 池田宗龜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1933년의 성불사 극락전 보존공사가 최초이다. 이 공사의 감독은 奧忠雄로 池田宗龜는 당시 조수였으나, 성불사 응진전 수리 때에는 池田가 공사감독을 맡고, 米田美代治가

Tab.5 Activities of conservation engineers in Korea appearing in the “Seikou”



寺 大雄殿 現場으로 이동했으며, 杉山民治, 岡田榮, 野村孝文가 平壤 大同門 現場에서 成川 東明館 現場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아 동일한 수리 現場에서 일했던 수리 기술자들이 다음 現場으로도 같이 이동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成川 東明館 現場에는 앞의 3명 외에도 다른 現場을 마친 吉川孝次와 板谷定一가 합류하여 5명의 수 조수였다. (杉山信三, 「附記」, 전계서, 1984. 참조)

25) 小川敬吉 수집자료로 알 수 있는 수덕사 대웅전 수리공사(1937~1940)의 수리철학과 수리내용에 대해서는 저자의 학위논문과 『수덕사! 천년의 아름다움(수덕사 대웅전 건립 700년 기념 특별기획전시회 도록)』(수덕사근역성보관, 2008)에서 이미 소개한 바 있다.

리기술자가 있었다.

같은 現場에 있었던 수리기술자가 다음 現場으로도 함께 이동한 것은 공사시기에 맞춘 것으로 사료되고 공사 도중에 다른 곳으로 이동한 수리기술자는 특별히 없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宮城忠一, 小川敬吉, 野村孝文, 杉山信三<sup>26)</sup>가 각 現場의 수리감독을 맡았고, 이들은 現場감독 뿐만 아

26) 杉山信三(1906~1997)는 일본 京都 출신으로 京都高等工藝學校 圖案科를 나와 京都府 古社寺修理 技手와 조선총독부 技手を 지냈고, 해방 이후에는 奈良文化財研究所 平城宮跡發掘 조사부장, 近畿大學 교수, 京都市 매장문화재연구소 소장을 역임했다.



나라 다른 업무도 겸임하였다. 野村는 경성고등공업학교 교수와 平壤 大同門 공사감독을 겸임하였고, 小川는 修德寺 大雄殿 공사감독과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교육과 고적담당자이기도 했다.<sup>27)</sup> 그 외에 藤島亥次郎는 동경제국대학 교수이면서 華嚴寺 覺皇殿 공사 고문이기도 하였다.

한편 현장 담당자에는 한국인으로 보이는 이름도 있어 華嚴寺 覺皇殿에는 楊澈洙, 修德寺 大雄殿에는 鄭愚鎭, 淸平寺 極樂殿에는 李漢哲<sup>28)</sup>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이외에도 『清交』 회비 납부자 명단에서 朴滉植이라는 이름이 보인다.<sup>29)</sup>

또한 『清交』에는 수리기술자들의 전임 소식도 전하고 있다. 淸平寺 極樂殿 수리공사에 참여했던 李漢哲은 수리공사 완료 후에는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교육과에 근무<sup>30)</sup>하게 되었고, 板谷定一은 <Tab.5>에서 淸平寺 極樂殿 공사 완료 후에 成川 東明館 현장으로 이동을 하지만, 두 공사현장 사이에 공백기 중에는 일시 귀성을 한 것 같다.<sup>31)</sup> 그 외에도 鄭愚鎭은 修德寺 大雄殿 수리공사를 퇴직한 후에는 충청남도 도청 토목과로 전임했으며<sup>32)</sup>, 小川敬吉는 1939년 8월 9일부로 조선총독부 철도국 겸 학무국으로 소속이 변경되었고, 경성박물관 사무소에는 杉山信三, 米田美代治, 李漢哲이 근무했음을 알 수 있다.<sup>33)</sup>

한편, 한국의 건조물 수리에 대한 직접적인 보고는 아니지만, 한국의 벽화 보존과 관련하여 杉山信三는 岡正夫<sup>34)</sup>가 조선총독부 촉탁으로 부석사 조사당 벽화의 보존 방법을 마련하는 일에 관여했던 인물임을 밝히고 있다.<sup>35)</sup>

또 『清交』에는 杉山信三와 岡正夫, 杉山信三와 米田美代治, 小川敬吉와 阪谷良之進의 관계를 엿볼 수 있

는 기사도 있어 한국에서 활약한 수리기술자들의 교류관계를 유추하는 것도 가능하다. 구체적인 내용은, 3-2절에서 고찰하도록 하겠다.

### 3-2. 일제강점기 수리기술자들에게 있어서의 『清交』의 가치

『清交』가 일본인 수리기술자들의 지식 교환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잡지라는 것은 앞에서 이미 밝힌 바 있다. 이 절에서는 한국에서 활동했던 일본인 수리기술자들에게 『清交』가 어떤 의미를 가진 잡지였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杉山信三는 『清交』 제 2호에 이 잡지의 발행에 관해 그 소감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sup>36)</sup>

(전략) 내지에 있을 때조차도 전국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과 뜻을 같이 하면서도 어느 분이 어디에 계신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만, 조선에 있으면서는 더더욱, 또한 평소에 지도를 받고 있는 분에게조차 무소식이 지나쳐 전혀 아무런 소식도 전하지 못하고 있어 정말 죄송하기 그지없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참에 이 기획을 보고 만약 이것을 통해서라도 평소의 결례를 용서받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중략) 조선에도 제가 온 뒤로 많은 분들이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 분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가능하다면, 그분들과 연계해서 忍冬會 조선지부를 만들어야 할까요? 마침 오늘 오후부터 강원도 춘천군 청평사 극락전의 수리현장에 갑니다. 현장 주임은 筑摩神社 공사를 마치고 온 板谷씨입니다. 이 기획 취지를 전하여 현장차원에서 이 기획에 찬성하고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합시다. 이 출장에서 돌아오면 경성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여 그쪽 단체의 상황을 알게 하고 조선지부를 만들도록 힘써서 조선의 상황도 전하는 원고를 쓰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기관지를 받아 보기 전에는 각 현장의 사진인화 교환회라도 조직한다면 서로 도움이 될 일이 많지 않을까? 특히 조선의 건축은 내지인들에게는 드문 사례이고 내지의 건축은 조선에 있는 저희에게는 향수를 느끼게 하는 것으로 그런 기회를 만든다면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만, 이 『清交』를 받아보고서 제 바램은 이쪽에서 삼화라도 될 만한 사진을 많이 보내면 자연스럽게 이뤄지리라 생각합니다. (후략)

杉山の 바램이 어느 정도 성취되었는지에 대해서는 忍冬會 회원명부나 원고 집필 여부 등으로 확인하는 것이 빠르겠으나 회원명부 확인이 되지 않아 『清交』의 회계보고 및 회비납부자 명단을 중심으로

27) 『清交』 제 7호, 忍冬會, 1938. 1, p.27.

28) 李漢哲은 경성고등공업학교 건축학과를 졸업한 후에 경기도 개풍군의 관음사 대웅전 수리공사에 참여한 인물이다. (杉山信三, 전게서, 1984. 참조)

29) 「14年12月1日以后ノ會費受取」, 『清交』 제 12호, 忍冬會, 1940. 1, p.72.

30) 「消息 轉任」, 『清交』 제7호, 忍冬會, 1938.11, p.26.

31) 「消息 轉任」, 『清交』 제7호, 忍冬會, 1938.11, p.26.

32) 「消息」, 『清交』 제 9호, 忍冬會, 1939. 4, p.29.

33) 「朝鮮宝物修理現場配備陣 (昭和14年9月30日)」, 『清交』 제 11호, 忍冬會, 1939. 11, p.77.

34) 岡正夫(1891~1941)의 이력에 대해서는 『清交』 제18호(1941. 1)의 p.136을 참조.

35) 杉山信三, 「追悼」, 『清交』 제18호, 忍冬會, 1941. 1, pp.148-149 참조.

36) 杉山信三, 「ポスト」, 『清交』 제 2호, 忍冬會, 1937. 7, pp.39-40.

이 모임에 뜻을 같이 한 사람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당시 한국에서 활동한 수리기술자들<sup>37)</sup>의 이름을 <Tab.6>와 같이 확인할 수 있으며 동일인의 경우는 가장 먼저 등장한 경우만 표기했다. 『清交』 제 3호가 간행된 1937년 12월의 시점에는 이미 杉山信三와 吉川孝次가 忍冬會 활동에 참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清交』 제 9호가 간행된 1939년 봄까지 총 11명의 수리기술자가 이 활동에 동참을 표했음을 알 수 있다.

Tab.6 Entrant of the "Seikou"

Serial No.	Conservation engineer	Month of Publication
No. 3	杉山信三, 吉川孝次	1937. 12.
No. 5	池田宗龜, 板谷定一, 李漢哲	1938. 7.
No. 8	鄭愚鎭	1939. 2.
No. 9	杉山民治, 米田美代治, 上久保九市郎, 井戸本 治, 楊澈洙	1939. 4.

<Tab.2>에서 알 수 있듯이 『清交』에는 비록 한국 건축에 대한 기사건수는 적으나 각 기사와 관련된 사진이나 도면을 본문 중에 삽입하거나 삽화로서 이용한 부분은 본 절의 서두에 소개한 杉山の 『清交』 간행에 대한 소감 인용문에서도 볼 수 있듯이 杉山는 시각적 자료인 사진을 인화해서 교환하는 것을 이상적인 지식교환 중 하나라 생각한 것 같고, 『清交』라는 매체를 이용하여 그것을 실현하려 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오늘날과 같이 정보교환이 용이한 시대에서는 당연한 방법론이지만, 서로간의 교류가 힘든 약 7,80년 전의 상황에서는 『清交』 속에 실린 사진과 도면의 자료적 가치는 상당히 높았다고 볼 수 있다.

3.1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수리현장에는 한국인 담당자들도 있었으나 아쉽게도 그들이 원고를 투고한 흔적은 없다. 楊澈洙, 鄭愚鎭, 李漢哲이 忍冬會의 활동이나 『清交』를 구독함으로써 직·간접적으로 받은 영향이 있는 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알 길이 없다.

마지막으로 『清交』의 忍冬會의 동인지로서의 성격을 엿볼 수 있는 것은 수리현장이나 건축물에 관한 소개 이외에도 수리기술자들 사이에 어떻게 인맥이 형성되었고 또 어떤 교류가 있었는지에 대한 회고록들이다.

부석사 조사당 벽화 보존방법에 대한 연구 촉탁을 맡았던 岡正夫는 杉山信三의 학교선배였고,<sup>38)</sup> 杉山信三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성불사 수리현장으로 간 米田美代

37) 본 논문의 3장을 참고.

38) 杉山信三, 「追悼」, 『清交』 제18호, 忍冬會, 1941. 1, pp.48-49 참조.

治를 대신하여 조선총독부 박물관 일을 담당했다.<sup>39)</sup> 小川敬吉는 러일전쟁이 끝나고 난 후 1907년 여름에 일본 內務省 宗教局 古社寺室에서 阪谷良之進과 함께 특별 보호건조물 보존에 관련된 일을 하면서 매일 함께 도면을 그리고 일본건축의 장래와 기술자의 포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던 사이였다고 한다. <sup>40)</sup> 이후 내무성에서 문부성으로 이동했을 때에도 함께 일했던 사이였으나 각자 맡은 일이 달라져 헤어지게 되었지만, 두 사람은 한국과 일본에서 각자 고건축 보존 업무를 하였다. 小川는 내무성 시절부터 조선총독부로 이동하고 나서도 阪谷로부터 지도 편달을 받았다고 회고하고 있는데,<sup>41)</sup> 그 중 하나가 아마도 1933년에 실시된 阪谷의 조선시찰여행이 아닐까 한다. 이 시찰여행은 조선총독부가 조선 고건축 보존사업의 현황 시찰과 지도를 위해 阪谷를 초빙한 것으로 小川가 기획한 것으로 되어 있다.<sup>42)</sup> 이를 정리하면 <Fig.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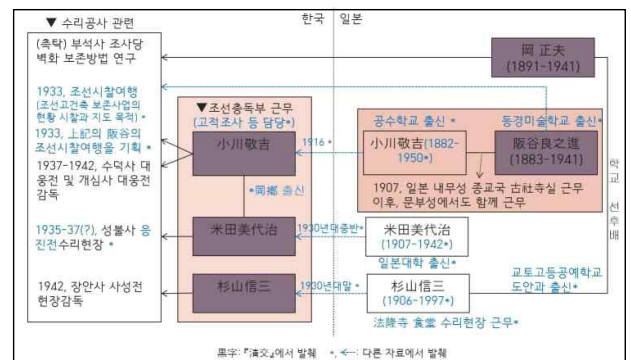


Fig.4 Interchange relation of the Japanese conservation engineers

5. 결론

이상에서 본 연구를 통해 『清交』에 등장하는 한국의 건축문화재 조사 및 보존에 대하여 살펴본 바를 『清交』에 보이는 한국 관련 기사의 특징, 1930~40년대의 수리현장과 수리기술자의 상관관계, 그리고 『清交』의 사료적 가치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9) 杉山信三, 「扶餘に居て米田君を偲ぶ」, 『清交』 제 23호, 忍冬會, 1942. 3, pp.28-33 참조.

40) 小川敬吉, 「阪谷さんの内務省時代の思出で」, 『清交』 제 22호, 忍冬會, 1942. 7, pp.192-194.

41) 위와 같음.

42) 杉山信三, 「まえがき」, 『阪谷良之進遺著一朝鮮行』, 私家版, 1993 참조.

첫째, 『清交』에 나오는 한국 관련 기사는 건축문화재 수리공사에 대한 간략한 보고가 3건(제 8호, 제 9호, 제 15호), 재해와 관련된 기사가 1건(제 13호), 한국건축에 대한 논고가 4건(제 15호, 제 16호, 제 20호, 제 23호)이 게재되어 있다. 그 외에 수리현장과 담당자 등에 관한 정보(제 3호, 제 4호, 제 7호, 제 11호, 제 13호, 제 14호, 제 16호, 제 20호)가 꾸준히 실려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한국의 건축문화재 수리현장은 총 9개소이고 수리기술자는 약 20여명이며 그 중 3명은 한국인이다. 한 현장의 공사가 끝나면 그 현장에 있었던 수리기술자들은 다음 현장으로도 같이 이동하는 경향을 보였고, 이는 공사시기에 맞춘 이동으로 보여진다. 공사감독은 일본인 수리기술자들이 맡았다.

셋째, 『清交』는 일본 내의 수리기술자들 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의 건축문화재 보존 소식을 접할 수 있는 매체였을 뿐만 아니라 각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와 지식을 교환할 수 있는 장으로서의 역할을 한 잡지라고 할 수 있다. 杉山信三가 주축이 되어 한국의 건축문화재 보존수리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던 기술자들도 1937년부터忍冬會에 참가하기 시작하여 1939년에는 대부분의 수리기술자들이 이 모임의 회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인 현장 담당자들은忍冬會 회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이나 원고 투고 흔적은 없어 『清交』가 한국인 수리기술자들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파악할 길이 없었다.

본 연구는 아직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지만, 『清交』라는 희소 자료를 국내에 소개하고 사료 속에 묻혀있던 1930~40년대의 한국의 건축문화재 수리를 둘러싼 각종 정보들을 취합하여 수리기술자들의 현장이동과 일본인 수리기술자들의 인적 네트워크 등을 가시적으로 복원할 수 있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 References

1. Architectural Institute of Japan, 『Development History of Modern Japanese Architecture (近代日本建築學發達史)』 下卷, Bunseishoin (文生書院), 2001.
2. Han, Jaesoo, 「A Study on the Evolvement of Science of Architectural History in Korea」, Graduate School of Hanyang University, 1987
3. Korean Association of Architectural History, 『Study on the Korean Architecture I: Fields and Times』,

- Baleon Publishing Company, 2003
4. Nindokai, 『Seikou』, No.1~No.26, 1937. 4~1943.12.
5. Nobuzo Sugiyama, 『Medieval Architecture in Korea (韓國の中世建築)』, Sagamishobo (相模書房), 1984.
6. The Japanese Association for Conservation of Architectural Monument, 『JACAM REPORT (文建協通信)』 No. 100, 2010. 4.

접수(2014. 6. 15)

게재확정(2014. 8. 15)